

광주산 댄스컬 '잔향' 무대 오른다

〈댄스+뮤지컬〉

몇개월 전부터 광주시 동구 조이댄스 아카데미 연습실은 땀에 흠뻑 젖은 댄서들이 뛰어내는 열기로 가득하다. 지역에서 내로라하는 춤꾼들이 이들은 춤과 음악, 영화와 연극이 어우러진 댄스컬 '잔향'의 공연을 앞두고 막바지 연습에 한창이다.

'광주산(產) 댄스컬이 온다'

'댄스+뮤지컬'의 합성어인 댄스컬은 최근 가장 각광받고 있는 공연 장르 가운데 하나. 대표적인 작품이 지난해 영국 에딘버러프린지 페스티벌까지 진출한 '비보이를 사랑한 발레리나'로 서울에 전용극장까지 갖추고 인기몰이 중이다. 댄스 퍼포먼스 '사랑하면 춤을 줘라' 역시 전용극장을 운영하고 있다.

서울에 비하면 극히 열악한 환경이지만 지역 댄서들이 주축이 돼 과감히 도전장을 던졌다. 창작 댄스컬 '잔향' 제작에 직접 나선 것이다. '토털 퍼포먼스 댄스컬'을 표방하는 '잔향'은 주로 춤과 음악으로 이루어진 기존 댄스컬과 달리, 연극과 영상까지 접목시킨 작품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스트리트 댄스를 중심으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문화계리집단 '뉴런'과 조이댄스아카데미 등이 중심이 된 '잔향'의 제작에는 지역의 쟁쟁한 실력자들이 참여하고 있다.

'난타'의 제작사인 PMC프로덕션이 만든 댄스컬 'UFO'의 주연배우였던 한세희씨가 총감독을 맡고, 국립발레단 솔리스트를 역임하고 서울종합예술학교 강사로 활동중인 유승진씨가 안무감독으로 뛰고 있다. 또 조이댄스아카데미 박정숙 원장과 '뉴런'의 멤버로 가수 빅뱅의 승리를 트레이닝시켰던 이병은씨가 배우로 출연하며 지도도 맡고 있다.

연극쪽에서는 광주연극제에서 최우

문화집단 '뉴런'·연극인들 의기투합 제작

9월 20일~21일 5·18기념문화센터 공연

내년초 서울 입성...지역문화콘텐츠 활용

수연기상을 수상한 푸른연극마을의 이당금씨와 윤희철씨가 함께 힘을 보태고 있다.

'잔향'은 지역에서 활동하는 한 댄서의 자전적 이야기를 바탕으로 스토리라인이 짜여졌다. 유년시절 친척에게 맡겨져 학대에 시달렸던 주인공 최겨슬은 윤소희를 만나 첫눈에 반하게 되고 그녀를 통해 '춤'에 빠져든다. 소희의

진실한 사랑을 통해 마음을 열게 된 겨슬은 최고의 댄서가 되려는 꿈을 꾸게 되고, 대회 며칠 전 가족의 문제를 알게 된다.

출연배우들은 지난해 말 오디션 과정을 거쳐 선별했다. 발레, 현대무용, 힙합, 팝핀, 래깅, 비보잉 등 다양한 춤을 선보일 출연진들은 대부분 지역에서 수

'잔향'은 오는 9월 20~21일(오후 5시·7시 5.18 기념문화센터) 관객들에게 첫 선을 보인다. 제작진은 첫 공연에 대한 관객들의 반응과 평가 등을 통해 작품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시켜 내년 초 쯤 서을 입성을 꿈꾸고 있다. 또 지역의 대표 공연문화콘텐츠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장기 공연도 검토중이다.

총감독을 맡은 안세희씨는 "기준의 댄스컬에서 더 나아가 영상과 연극까지 결합시킨 '잔향'이 지역 공연계에 신선한 바람을 일으키길 바란다"며 "첫 공연을 마친 후 앞으로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이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티켓 가격 3만원, 2만 5천원, 2만원. 문의 062-269-4722.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연극쪽에서는 광주연극제에서 최우

연기상을 수상한 푸른연극마을의 이당금씨와 윤희철씨가 함께 힘을 보태고 있다.

'잔향'은 지역에서 활동하는 한 댄서의 자전적 이야기를 바탕으로 스토리라인이 짜여졌다. 유년시절 친척에게

맡겨져 학대에 시달렸던 주인공 최겨슬은 윤소희를 만나 첫눈에 반하게 되고

그녀를 통해 '춤'에 빠져든다. 소희의

진실한 사랑을 통해 마음을 열게 된 겨슬은 최고의 댄서가 되려는 꿈을 꾸게 되고, 대회 며칠 전 가족의 문제를 알게 된다.

출연배우들은 지난해 말 오디션 과정을 거쳐 선별했다. 발레, 현대무용, 힙합, 팝핀, 래깅, 비보잉 등 다양한 춤을

선보일 출연진들은 대부분 지역에서 수

'잔향'은 오는 9월 20~21일(오후 5시·7시 5.18 기념문화센터) 관객들에게 첫 선을 보인다. 제작진은 첫 공연에 대한 관객들의 반응과 평가 등을 통해 작품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시켜 내년 초 쯤 서을 입성을 꿈꾸고 있다. 또 지역의 대표 공연문화콘텐츠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장기 공연도 검토중이다.

총감독을 맡은 안세희씨는 "기준의 댄스컬에서 더 나아가 영상과 연극까지 결합시킨 '잔향'이 지역 공연계에 신선한 바람을 일으키길 바란다"며 "첫 공연을 마친 후 앞으로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이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티켓 가격 3만원, 2만 5천원, 2만원. 문의 062-269-4722.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연극쪽에서는 광주연극제에서 최우

연기상을 수상한 푸른연극마을의 이당금씨와 윤희철씨가 함께 힘을 보태고 있다.

'잔향'은 지역에서 활동하는 한 댄서의 자전적 이야기를 바탕으로 스토리라인이 짜여졌다. 유년시절 친척에게

맡겨져 학대에 시달렸던 주인공 최겨슬은 윤소희를 만나 첫눈에 반하게 되고

그녀를 통해 '춤'에 빠져든다. 소희의

진실한 사랑을 통해 마음을 열게 된 겨슬은 최고의 댄서가 되려는 꿈을 꾸게 되고, 대회 며칠 전 가족의 문제를 알게 된다.

출연배우들은 지난해 말 오디션 과정을 거쳐 선별했다. 발레, 현대무용, 힙합, 팝핀, 래깅, 비보잉 등 다양한 춤을

선보일 출연진들은 대부분 지역에서 수

'잔향'은 오는 9월 20~21일(오후 5시·7시 5.18 기념문화센터) 관객들에게 첫 선을 보인다. 제작진은 첫 공연에 대한 관객들의 반응과 평가 등을 통해 작품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시켜 내년 초 쯤 서을 입성을 꿈꾸고 있다. 또 지역의 대표 공연문화콘텐츠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장기 공연도 검토중이다.

총감독을 맡은 안세희씨는 "기준의 댄스컬에서 더 나아가 영상과 연극까지 결합시킨 '잔향'이 지역 공연계에 신선한 바람을 일으키길 바란다"며 "첫 공연을 마친 후 앞으로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이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티켓 가격 3만원, 2만 5천원, 2만원. 문의 062-269-4722.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연극쪽에서는 광주연극제에서 최우

연기상을 수상한 푸른연극마을의 이당금씨와 윤희철씨가 함께 힘을 보태고 있다.

'잔향'은 지역에서 활동하는 한 댄서의 자전적 이야기를 바탕으로 스토리라인이 짜여졌다. 유년시절 친척에게

맡겨져 학대에 시달렸던 주인공 최겨슬은 윤소희를 만나 첫눈에 반하게 되고

그녀를 통해 '춤'에 빠져든다. 소희의

진실한 사랑을 통해 마음을 열게 된 겨슬은 최고의 댄서가 되려는 꿈을 꾸게 되고, 대회 며칠 전 가족의 문제를 알게 된다.

출연배우들은 지난해 말 오디션 과정을 거쳐 선별했다. 발레, 현대무용, 힙합, 팝핀, 래깅, 비보잉 등 다양한 춤을

선보일 출연진들은 대부분 지역에서 수

'잔향'은 오는 9월 20~21일(오후 5시·7시 5.18 기념문화센터) 관객들에게 첫 선을 보인다. 제작진은 첫 공연에 대한 관객들의 반응과 평가 등을 통해 작품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시켜 내년 초 쯤 서을 입성을 꿈꾸고 있다. 또 지역의 대표 공연문화콘텐츠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장기 공연도 검토중이다.

총감독을 맡은 안세희씨는 "기준의 댄스컬에서 더 나아가 영상과 연극까지 결합시킨 '잔향'이 지역 공연계에 신선한 바람을 일으키길 바란다"며 "첫 공연을 마친 후 앞으로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이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티켓 가격 3만원, 2만 5천원, 2만원. 문의 062-269-4722.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연극쪽에서는 광주연극제에서 최우

연기상을 수상한 푸른연극마을의 이당금씨와 윤희철씨가 함께 힘을 보태고 있다.

'잔향'은 지역에서 활동하는 한 댄서의 자전적 이야기를 바탕으로 스토리라인이 짜여졌다. 유년시절 친척에게

맡겨져 학대에 시달렸던 주인공 최겨슬은 윤소희를 만나 첫눈에 반하게 되고

그녀를 통해 '춤'에 빠져든다. 소희의

진실한 사랑을 통해 마음을 열게 된 겨슬은 최고의 댄서가 되려는 꿈을 꾸게 되고, 대회 며칠 전 가족의 문제를 알게 된다.

출연배우들은 지난해 말 오디션 과정을 거쳐 선별했다. 발레, 현대무용, 힙합, 팝핀, 래깅, 비보잉 등 다양한 춤을

선보일 출연진들은 대부분 지역에서 수

'잔향'은 오는 9월 20~21일(오후 5시·7시 5.18 기념문화센터) 관객들에게 첫 선을 보인다. 제작진은 첫 공연에 대한 관객들의 반응과 평가 등을 통해 작품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시켜 내년 초 쯤 서을 입성을 꿈꾸고 있다. 또 지역의 대표 공연문화콘텐츠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장기 공연도 검토중이다.

총감독을 맡은 안세희씨는 "기준의 댄스컬에서 더 나아가 영상과 연극까지 결합시킨 '잔향'이 지역 공연계에 신선한 바람을 일으키길 바란다"며 "첫 공연을 마친 후 앞으로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이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티켓 가격 3만원, 2만 5천원, 2만원. 문의 062-269-4722.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연극쪽에서는 광주연극제에서 최우

연기상을 수상한 푸른연극마을의 이당금씨와 윤희철씨가 함께 힘을 보태고 있다.

'잔향'은 지역에서 활동하는 한 댄서의 자전적 이야기를 바탕으로 스토리라인이 짜여졌다. 유년시절 친척에게

맡겨져 학대에 시달렸던 주인공 최겨슬은 윤소희를 만나 첫눈에 반하게 되고

그녀를 통해 '춤'에 빠져든다. 소희의

진실한 사랑을 통해 마음을 열게 된 겨슬은 최고의 댄서가 되려는 꿈을 꾸게 되고, 대회 며칠 전 가족의 문제를 알게 된다.

출연배우들은 지난해 말 오디션 과정을 거쳐 선별했다. 발레, 현대무용, 힙합, 팝핀, 래깅, 비보잉 등 다양한 춤을

선보일 출연진들은 대부분 지역에서 수

'잔향'은 오는 9월 20~21일(오후 5시·7시 5.18 기념문화센터) 관객들에게 첫 선을 보인다. 제작진은 첫 공연에 대한 관객들의 반응과 평가 등을 통해 작품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시켜 내년 초 쯤 서을 입성을 꿈꾸고 있다. 또 지역의 대표 공연문화콘텐츠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장기 공연도 검토중이다.

총감독을 맡은 안세희씨는 "기준의 댄스컬에서 더 나아가 영상과 연극까지 결합시킨 '잔향'이 지역 공연계에 신선한 바람을 일으키길 바란다"며 "첫 공연을 마친 후 앞으로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이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티켓 가격 3만원, 2만 5천원, 2만원. 문의 062-269-4722.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연극쪽에서는 광주연극제에서 최우

연기상을 수상한 푸른연극마을의 이당금씨와 윤희철씨가 함께 힘을 보태고 있다.

'잔향'은 지역에서 활동하는 한 댄서의 자전적 이야기를 바탕으로 스토리라인이 짜여졌다. 유년시절 친척에게

맡겨져 학대에 시달렸던 주인공 최겨슬은 윤소희를 만나 첫눈에 반하게 되고

그녀를 통해 '춤'에 빠져든다. 소희의

진실한 사랑을 통해 마음을 열게 된 겨슬은 최고의 댄서가 되려는 꿈을 꾸게 되고, 대회 며칠 전 가족의 문제를 알게 된다.

출연배우들은 지난해 말 오디션 과정을 거쳐 선별했다. 발레, 현대무용, 힙합, 팝핀, 래깅, 비보잉 등 다양한 춤을

선보일 출연진들은 대부분 지역에서 수

'잔향'은 오는 9월 20~21일(오후 5시·7시 5.18 기념문화센터) 관객들에게 첫 선을 보인다. 제작진은 첫 공연에 대한 관객들의 반응과 평가 등을 통해 작품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시켜 내년 초 쯤 서을 입성을 꿈꾸고 있다. 또 지역의 대표 공연문화콘텐츠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장기 공연도 검토중이다.

총감독을 맡은 안세희씨는 "기준의 댄스컬에서 더 나아가 영상과 연극까지 결합시킨 '잔향'이 지역 공연계에 신선한 바람을 일으키길 바란다"며 "첫 공연을 마친 후 앞으로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이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티켓 가격 3만원, 2만 5천원, 2만원. 문의 062-269-4722.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연극쪽에서는 광주연극제에서 최우

연기상을 수상한 푸른연극마을의 이당금씨와 윤희철씨가 함께 힘을 보태고 있다.

'잔향'은 지역에서 활동하는 한 댄서의 자전적 이야기를 바탕으로 스토리라인이 짜여졌다. 유년시절 친척에게

맡겨져 학대에 시달렸던 주인